루만의 체계이론 재고찰을 통한 기능체계로서 공론장 연구*

김태근**

<차 례>

1. 서론
2. 사회체계의 형성과정에서 매스미디어체계의 의미
  1) 분절적 분화와 계층적 분화의 형성과 특징
  2) 인쇄기술과 근대사회 :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와 매스미디어체계의 형성
3. 루만의 매스미디어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저널리즘체계
  1) 매스미디어체계 : 확산매체 혹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기능체계?
  2) 기능체계로서 저널리즘체계의 이론적 그리고 현실적 문제점
4. 기능체계로서 공론장 모델
  1)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공론장의 의미
  2) 기능체계로서 공론장모델을 위한 이론적 구성
  3) 공론장체계에서 행위자의 역할 : 영향력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
5. 결론

【국문초록】

한국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1021).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뮤니케이션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이해를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의 질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루만의 커뮤니케이션이론과 분화이론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그의 체계이론을 비판하거나 보완하는 이론들을 통해 각 개별국가들이 현재의 갈등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즉 지구화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지향점의 단초를 보여 주기 위하여 국민사회의 공론장체계를 주목하고 강조할 것이다.

주제어 : 체계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분화이론, 니클라스 루만, 행위자이론, 공론장체계.

1. 서 론

한국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혹은 소통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정도가 매우 높은 한국사회에 커뮤니케이션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가져다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는 커뮤니케이션과 담론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하버마스의 이론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조차 도덕적 이상주의로 평가되는 하버마스식의 주장은 한국사회에서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 높은 기대나 요란한 구호와는 달리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가부장적 질서와 유사가족주의적 틀이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매우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루만은 서구의 역사를 통해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서로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의 차이를 확인시킨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생각의 차이는 근대시

대의 시작과 함께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루만은 높아지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감축시키기 위하여 체계의 기능적 분화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지구화의 흐름 이전에 세계사회를 전제로 구성된 루만의 체계이론은 사회학적 인식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세계사회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현재에 루만의 체계이론은 오히려 이론적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루만은 사회의 진화론적 발전단계를 설정하면서 분절적 분화, 계층적 분화, 그리고 기능적 분화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근대사회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반면 분절적 분화와 계층적 분화의 특성은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대사회의 기능적 분화에 대한 루만의 이론적 접근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단선적 구분과 기능체계의 자기생산적 작동이란 개념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지구화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체계이론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세계사회의 무대 속에서 지역의, 특히 국민국가의 분절적 분화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세습자본주의가 이야기될 정도로 계층적 분화가 여전히 세계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경제논리가 다른 기능체계들을 압도하면서 기능체계의 폐쇄적 작동이나 자기생산이라는 루만의 체계이론의 전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능체계의 자기생산이라는 이론적 전제에서 시작하는 루만의 체계이론은 돈이 지배하는 시대에 사회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적절한 이론적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론과 사회분화이론을 통해 새로운 사회학적 시각을 제공한 루만의 학문적 성과는 인정되지만, 지구화현상은 루만

의 체계이론에 급변하는 현실을 이론적으로 새롭게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가 공론장체계와 국민사회와 행위자이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공론장의 영역이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이론적으로 취약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근거한다.

본 연구는 공론장체계를 상대적 자율성의 기능체계로 간주하고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단계를 거칠 것이다. 먼저 루만의 진화론적 사회의 분화단계를 설명할 것이다. 2장에서 기술될 루만의 분화단계의 설명은 확산매체인 언어, 문자, 인쇄술, 혹은 방송이 기능체계로서 매스미디어체계가 되는 역사적 배경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3장에서는 루만이 주장하는 기능체계로서 매스미디어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다른 학자들에 의해 대체된 새로운 기능체계로서 저널리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4장에서는 이 두 체계를 대체하기 위하여 루만에 의해 환경으로 간주되었던 공론장에 독자적 기능체계의 특징을 부여할 것이다. 이어서 그동안 루만에 의해 소홀히 다루어졌던 행위자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단순한 관찰이 아닌 행위자들의 실천을 통한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전통적 저널리즘체계가 주도하였던 공론장이 디지털 공간과 결합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영향력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갈등이 발생하거나 서로 협력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될 것이다. 덧붙여 정치체계의 기능이 약해지는 신자유주의 흐름에 분절적 분화의 특징인 국민사회가 부각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사회의 행위자에 기초한 공론장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여 지구화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지향성의 단초를 드러내 보여 줄 것이다.

2. 사회체계의 형성과정에서 매스미디어체계의 의미

1) 분절적 분화와 계층적 분화의 형성과 특징

루만의 사회학적 해석에 따르면 인간사회는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시작되었다. 커뮤니케이션과 복잡성, 진화적 분화단계는 사회학자 루만이 초기부터 이론적 구성을 위해 전제했던 가장 기본적 구성요소다.[1] 그는 이 세 개의 개념을 통해 당시 주류 사회학과는 다른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과거 철학적 전통에서 나온 사회학이 주체철학에 기초하여 사회이론을 전개하였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초기 사회학의 핵심개념이었던 행위이론이 비판의 대상이었다. 루만은 베버식의 주류 사회학이 전제로 삼았던 행위이론과 주체철학과 인과관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사회이론을 구성하였다. 즉 그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행위를 규명한다는 설명을 거부한다. 그 대신 한 개인의 의식체계와 다른 개인의 의식체계가 언어를 통해 연결되고 사회학은 그 결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과정 속에서 인과관계를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 루만의 생각이었다. 어느 누군가는 의식체계에서 수많은 다양한 의미를 우연히 정보로서 선별하고 다른 사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선별하여 커뮤니케이션하게 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닌 우연성과 우연성의 만남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전개되는 것이다. 인간사회가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이중적 우연성의 만남을 루만은 인류의 역사에서 고대사회, 고등사회, 그리고 근대사회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

1) Luhmann, "Systemtheorie, Evolutionstheorie und Kommunikationstheorie", in: Luhmann(ed.), 1975(이하 Luhmann 1975로 표기), p. 197.

고대사회에서는 구술 커뮤니케이션이 지배하였다. 영장류의 상태에서 진화하여 언어를 가지게 된 인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비로소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술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는 명백하다. 인간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상대방의 이야기 내용을 그대로 뇌에 저장하거나,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 수 없었다. 인간은 같은 장소에 출석한 타인들과 구체적 상황에 관해 구술로서 커뮤니케이션해야 했다. 고대사회가 동종의 부분체계로서 작은 규모의 공동체 혹은 친족 집단에 기반을 둔 수많은 부족사회로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2] 만약 구술적 상호작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사회의 비개연성은 대단히 증가할 것이고 사회의 질서는 위협받게 되었을 것이다. 인간은 "상황을 넘어서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전형화된 의례나 축제와 같은 연출들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였다.[3] 혈통만으로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기능들이 다중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처리되었다.[4] 평등한 고대사회의 발전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

지금껏 역사를 해석할 때 주류 학자들은 고대 원시사회에서 위계서열의 고등사회로 넘어오는 배경을 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찾았다.[5] 첫 번째 배경은 인구 증가와 함께 경제의 물질적 재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평등이 발생했으리라는 인구학적 논리다. 두 번째는 사회집단의 긴장과 적의를 해소하고 질서를 구

---

2) Luhmann, 1975, p. 197; Luhmann, "Veränderungen im System gesellschaftlicher Kommunikation und die Massenmedien", in: N. Luhmann(ed.), 2005(이하 Luhmann, 2005로 표기), p. 355.

3) 루만 지음, 장춘익 옮김, 『사회의 사회1, 2』, 새물결, 2012(이하 루만, 2012로 표기), p. 745.

4) 루만, 2012, p. 740.

5) Luhmann, "Differentiation of Society", in: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1977, pp. 32-36.

축하기 위해 포함과 배제가 선별적으로 채택되었다고 주장하는 인류학적 관점이다. 세 번째 관점으로 국가발생이론에서 원인을 찾는 방식이다. 루만은 이 같은 세 가지 차원의 불평등원인은 고대사회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불평등 현상이 교정되어 다시 원시 공동체 사회로 되돌아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루만이 세 가지 요인을 열거하면서 문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문자의 등장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불가역적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루만은 불평등의 관계가 단순히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라기보다, '커뮤니케이션 잠재성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등장하고 구체화되었다고 주장한다.[6] 커뮤니케이션을 사회이론구성의 핵심요소로 간주하는 루만의 이론적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고등문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문자를 알고 있는 자가 지배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피지배자가 되었다.[7] 문자를 독점하는 중앙을 중심으로 주변이 통제되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서열관계가 형성된 것이다.[8] 서구역사에서 종교는 서열관계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자를 습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특권을 누렸던 성직자가 위계서열의 정점에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학이 점차 성직자뿐 아니라 왕 가까이에서 세속적 행정을 담당하는 집단을 배출하면서 귀족이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관직 관료제가 공고화되는 중앙을 중심으로 성직자와 귀족을 중심으로 서서히 계층분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공간적 위치에 따라 구분되는 위계적 관계에서 도시, 통치자, 통치의 장소, 귀족, 성직자가가 중심을 차지하였고, 토지와 부차적인 사회지위들은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사

6) Ibid, p. 33.
7) Merten, "Evolution der Kommunikation", in: Merten et al.(ed.), 1994(이하 Merten, 1994로 표기), p. 146.
8) 루만, 2012, p. 775.

회는 수직적으로 분화되었다.[9] 중앙을 차지한 세력들은 전체 영토, 전체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다.[10] 위/아래라는 주도적 차이에 따라 사회가 신분적으로 분화되면서 인격에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신분이 인격의 행위를 미리 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층신분은 낮은 신분의 인격을 배제하면서 자신의 신분질서를 재생산하였다.

자신을 다른 하위신분과 구별 짓는 문자를 통해 상층신분은 통치수단으로 법과 관료제를 독점하였다. 신분사회는 평등한 고대사회보다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졌다. 고대사회보다 복잡성이 증가되면서 고등문화시대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추상적인 이념이 요구되었다. 종교나 도덕이 중요해졌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중세사회에서 보듯이 종교가 도덕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덕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종교는 더 많은 것을 수행한다. 종교는 신의 의지에 따라 질서 유지를 보장하며 행위 가능성들을 계층 체계 안에서 자리 잡게 한다. 서열을 나누는 차이 자체는 행동반경과 의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안에서 개별자가 신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11] 세속적 귀족세력과 종교적 성직자의 동맹이 이루어지면서 계층적 사회에는 한편으로는 위계질서가 형성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에 따라 수평적으로 분화되어 상류층의 동질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12]

문자를 통해 인간은 공간적 넓이와 시간적인 간격을 메울 수 있었고, 알지 못하는 파트너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호작용의 관계와 통제의 촘촘한 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13] 커뮤니케

---

9) 베르크하우스 지음, 이철 옮김, 『쉽게 읽는 루만』, 2012, p. 411.
10) 같은 책, p. 412.
11) 크네어·나세이 지음, 정성훈 옮김,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2008, p. 169.
12) Luhmann, 2005, p. 355.
13) Luhmann, 2005, p. 358.

이션을 위해 사람들이 함께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회는 구술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여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았던 고대사회와는 달리 공간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사회통제방식 혹은 새로운 사회질서유지방식을 모색해야 했다. 그것이 계층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도 기능체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서서히 사회에는 문자의 추상성이 증가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위한 기능적 분화의 단초들이 마련되었다. 과학성과 논리의 기준, 종교와 법의 도덕적으로 일반화된 원칙, 경제적 계산의 추상적 절차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14]

계층적 분화시대의 기능체계적 특징은 명백한 한계를 가졌다. 근대사회와는 달리 고등문화시대의 기능체계는 모든 사람이 아닌 상층신분에게만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화폐매체 내에서 지역적 교역과 원거리 교역을 달리 취급하고 지역적으로 환율을 달리하는 상이한 화폐체계들"이 경제체계에서 작동하였다.[15] 화폐매체가 지역적 교역과 원거리 교역이 다르게 취급되어 교환되었고, 지역적으로 환율을 달리하는 상이한 화폐체계가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16] 보편적이 아니라 위계적 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체계에서 정치권력은 귀족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정치세력은 지배이데올로기를 제공했던 성직자신분과 결탁하여 영토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 쉬빈이[17] 밝히고 있듯이 중세에 이미 기능적 분화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세시대와 근대초기까지 계층적 서열은 체계의 기능적 분화 현상이 부각되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였다.

---

14) Luhmann, 2005, p. 358.

15) 베르크하우스 지음, p. 412와 비교.

16) 루만, 2012, p. 816.

17) Schwinn, "Soziale Ungleichheit und funktionale Differenzierung", in: *Zeitschrift für Soziologie* 24(3), 1998, pp. 3-17.

계층적으로 분화된 사회에 잠재되어 있었던 기능체계들은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명확한 모습을 드러냈다. 루만은 이러한 사회구성의 변화가 인쇄술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인쇄술의 발명이 매스미디어로 확장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과거처럼 단순히 영토적 경계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사회를 무대로 전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비례하는 사회의 복잡성을 감축시키기 위해 근대사회는 기능을 가진 체계들로 분명하게 분화되어갔다.

2) 인쇄기술과 근대사회 :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와 매스미디어체계의 형성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을 가능하게 했던 변곡점을 어느 시점에 둘 것이지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그 시점에 따라 학자의 세계관 그리고 이론적 지향점 및 학문적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적 유물론에 따라 세계를 해석하는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차이가 나타나는 본원적 축적을 강조한다. 베버는 근대의 합리적 특성이 문화적으로 구축되는 종교개혁을 강조한다. 경제적 요소를 우선하는 마르크스와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베버와는 달리 커뮤니케이션을 전제하는 루만은 근대사회의 진입에 인쇄술의 발명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인쇄술이 근대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작동방식과 인쇄술의 역사적 전개과정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로 의미(Sinn)를 강조하면서 사안적(sachlich) 차원, 시간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한다. 의미가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체계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근대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는 현상을 추적하

기 위해서이다. 개별의식체계에서 의미는 정보, 전달, 그리고 수용/이해의 과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된다. 서로 동의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한다는 루만의 기본 전제를 감안하면 사회의 복잡성이 갈수록 증가된다는 주장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직접 대면하는 관계에 있었던 원시사회에서 의미는 개인의 제한된 기억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의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고등문화시대에 문자는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제한된 인간의 기억을 극복시키는 수단이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가 해석되었던 이 시기에 문자와 기억을 모두 동원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복잡성은 이전 시대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 상위 지배계층에 의해 주도되면서 분명한 한계도 보여주었다.

인쇄술의 발명은 고등문화사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인쇄술이 전근대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제약했던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이어서 매스미디어로 진화하면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던 것이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의 발명은 근대적 개인들이 자신의 내면적 의미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타인과 교환하려는 의지를 강화시켰다. 여기에서 인쇄술이 근대사회에 끼친 영향과 관련하여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근대사회의 복잡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기원이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인쇄술은 '무에서 나온' 창조물이 아니었다.[18] 중세의 계층적 관계는 한편으로 위계질서를 강요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지식의 축적된 양을 통해 새로운 기술혁신을 추동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쇄술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세력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고위 성직자였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450

18) 디버트 지음, 조찬수 옮김,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질서』, 나남출판, 2006 (이하 디버트, 2006으로 표기), p. 73.

부터 1455년까지 생산된 인쇄물의 대부분은 면죄부증서 및 성경 인쇄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인쇄술이 당시 교회지도층에게 사람들의 깊은 신앙심을 고양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반영한다. 르네상스 후기로 접어들면서 인쇄기술은 서서히 자기내면의 성찰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자신을 표현한 글과 그림이 교류되면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인쇄술이 주로 활용되었던 종교서는 가톨릭교회의 통제아래에 대량화, 규격화, 획일화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비판적 정신은 지속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었다. 일상에서의 다양한 개인적 견해와 종교에서의 획일적 통제는 충돌을 예고하였다.

종교개혁은 잠재된 사회적 모순을 전면에 드러나게 했던 계기가 되었다. 교회내부의 부패가 불거지면서 루터는 면죄부증서의 문제를 비판의 전면에 내세웠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릴 당시 그는 설교가 아닌 벽보를 통해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였다. 반박문을 붙인지 2주 후에 반박문과 요약문은 독일 전역에 순식간에 배포되었다. 루터는 사람들의 폭발적 동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대중은 이미 가톨릭교회의 타락을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었음이 루터의 행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대중의 비판의식은 소책자와 유인물 형태를 통해 결집되고 또한 행동으로 표출되었다.[19]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는 인쇄기라는 새로운 기술을 종교개혁운동을 위해 자유자재로 활용하였다.[20] 예를 들면 "1500년과 1530년 사이에 독일어권의 인쇄소에서 발행된 약 1만 부의 팸플릿 가운데 20%"가 루터에 의해 저술된 것이었다.[21]

---

19) 페브르·마르탱 지음, 강주헌·배영란 옮김, 『책의 탄생』, 돌베개, 2014, p. 494.
20) 같은 책, p. 491.
21) 디버트, 2006, p. 143.

루만이 근대사회로 가는 관문으로 간주했던 인쇄술의 출현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는 급변하게 된다. 구술이나 문자를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미디어를 통해 세계인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선 종교개혁이후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과 16세기 후반부터 등장했던 신문은 사회의 복잡성과 우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회의 질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루만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체계이론으로 설명한다. 루만에 따르면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체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사람의 구술이나 문자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매체가 작동하게 된다. 다른 체계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각 부분체계의 기준은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작동하는 이항코드이다. 가령 정치체계에서 권력의 소유/비소유, 경제체계에서 돈의 지불능력/지불불능, 과학체계에서 진리/비진리의 구분, 종교체계에서 믿음의 유무이다. 루만은 매스미디어체계의 경우 정보와 비정보의 코드를 통해 자기생산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기초삼아 다음 장에서는 루만이 설명하는 매스미디어체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3. 루만의 매스미디어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저널리즘체계

루만의 체계이론은 사회학에 독창적인 학문적 자극과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이라고 평가되는 그의 이론은 한편으로는 내부적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과 다른 한

편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의 근대사회를 해석하기 위하여 유연한 이론을 제시하였지만, 그의 체계이론이 다시 경직된 이론적 틀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루만의 진화론적 분화이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분화이론에 대한 그의 기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근대사회를 단순히 '체계가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하고 도식적이다. 지구화 이후 명확하게 드러나는 국민국가의 분절적 단위와 계층적 분화현상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갈수록 빈부격차와 사회불평등의 문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되고 있다. 분절적 분화와 계층적 분화의 현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 대해 루만의 체계이론은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두 번째 문제로서 행위자가 허구로 존재하는 루만의 체계이론은 현실의 변화를 주도하는데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루만은 기능체계들이 기능적 등가성을 가진 코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고 자기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로 인해 행위자는 체계이론 내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된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어느 개인의 의식체계와 다른 개인의 의식체계 사이에 자본의 논리가 개입하면 경제체계가 다른 기능체계들을 주도하고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각 기능체계의 자기생산적 작동을 전제하는 루만의 체계이론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사회불평등의 문제에 실천적 행위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루만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매체와 확산매체를 구분한다. 그러나 그는 매스미디어체계를 확산매체이면서 동시에 기능체계로 규정하여 상호작용체계의 커뮤니케이션 전개과정과 기능체계의 커뮤니케이션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돌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세 번째 문제로 지적한 매스미디어체계의

문제점을 1)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매스미디어체계를 저널리즘체계 혹은 공론장으로 대체하는 이론적 경향을 2)에서 설명할 것이다. 매스미디어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다음 장에서는 매스미디어체계를 대체하는 공론장체계를 통해 첫 번째 진화론적 분화단계의 문제와 두 번째 행위자의 부재문제를 보완시켜 나갈 것이다.

1) 매스미디어체계: 확산매체 혹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기능체계?

(1) 루만의 매스미디어체계의 개요

인쇄술은 단순히 기계적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시켰다. 1609년 신문이 등장한 이후 매스미디어는 1895년의 영화, 1918년 라디오, 1931년의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발전하였다.[22] 이처럼 발전하였던 매스미디어는 근대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함께 사람을 영토의 경계에서 벗어나 세계사회를 무대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타인과 다르게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확인되는 생각의 차이는 사회의 복잡성을 증폭시켰다. 전근대시대에 잠재되어 있었던 기능체계들이 근대사회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의 복잡성을 감축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매스미디어체계의 기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능적 체계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루만은 체계가 자신을 환경과 구별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표시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체계는 자신을 표시하고 환경과 구별하는 그 시점에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맹점을 노출한다. 루만이 1차질

22) Merten, 1994, p. 142.

서의 관찰에서 발생하는 기능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차질서의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이 과정에서 매스미디어체계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루만은 기능체계들은 서로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권력을 커뮤니케이션매체로 가지는 정치체계와 화폐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제체계는 서로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없다. 그러나 기능체계들의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서로 다르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매체를 가진 체계들이 서로 교류하지 않고 폐쇄적이기만 한다면 체계통합뿐만 아니라 사회통합도 생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루만은 커뮤니케이션매체가 체계에서 체계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스미디어체계가 기능체계들의 2차질서의 관찰이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2차질서의 관찰을 위해 필요한 매스미디어체계는 19세기 말 기술공학의 발전 위에서 기능체계로서 모습을 띠었다. 중세에는 종교가, 근대초기에는 정치가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체계들이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근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어느 특정한 기능체계가 정점에서 사회를 통제하거나 통합할 수 없게 되었다. 정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계사회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매스미디어체계는 자기관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체계들의 자기관찰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매스미디어체계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 매스미디어체계는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을 위해 기술적 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장치를 포함"하여 작동하는 체계라는 것이다.[23] 인쇄, 사진, 전화, 텔레비전 등의 기술들은 불특정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생산되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적 구조 속에서 루만은 1990

23) 루만 지음, 김성재 옮김, 『대중매체의 현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이하 루만, 2006으로 표기), p. 2.

년 이전 저작에서 매스미디어체계에 통합의 역할을 부여하였다.[24]

루만은 자기생산(Autopoiesis)의 개념으로 체계이론을 집대성한 『사회적 체계』를 1984년에 출간한 후[25] 매스미디어체계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였다. 자기생산이란 개념으로 체계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된 그는 매스미디어체계를 하나의 기능체계로 간주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모순되는 상황을 설정한다. 하나는 매스미디어체계가 전체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이 야기하는 혼란에 질서를 부여해준다는 점이다. 그것은 정보/비정보의 이항코드를 사용하여 정보를 가공하는 매스미디어체계의 작동방식에 연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매스미디어체계는 단순히 정보를 통제하고 배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란(Irritation)을 생산한다는 점이다.[26]

매우 추상적인 매스미디어체계에 대한 루만의 기능체계 설명은 세 가지 프로그램 영역들을 통해 좀 더 명확해 진다. 첫째는 뉴스와 보도이다. 뉴스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는 정보로부터 정보를 새롭게 생산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광고로서 "취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취향을 공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잠재적 기능으로 가진다.[27] 마지막 세 번째 프로그램은 현대인의 여가문화를 담당하는 오락이다. 매스미디어체계 내에서 정보를 코드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이전처럼 '합의적 현실구성의 창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이 의식체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주제를 중심으로 후속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루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견의 다양성이 "계층화 혹은 이데올로기적 당파성과 같

24) Luhmann, 2005, p. 366.
25) 한국어 번영본은 루만 지음, 박여성 옮김, 『사회체계이론 1,2』, 한길사, 2007.
26) 루만, 2006, p. 29.
27) 루만, 2006, p. 63.

은 확고하게 주어진 구조들에 귀속"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28] 실행체계로서 프로그램들이 가동된 결과 매스미디어체계는 다양한 사회체계들 혹은 환경으로부터 최신의 정보를 수집, 선별하고, 해석, 가공하고 이어서 재생산된 정보를 다른 사회체계들에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준다. 이런 점에서 매스미디어체계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체계들도 교란시킴으로써 체계들의 역동적 안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⑵ 기능체계로서 매스미디어체계의 문제점과 저널리즘 체계로의 대체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핵심개념 중의 하나인 커뮤니케이션 및 매스미디어체계와 관련된 설명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세 이후 매스미디어의 실무적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된 반면, 관련학문은 매우 뒤늦게 등장하면서 학문적 논쟁이 짧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70년대부터 신문학, 퍼블리시티학, 커뮤니케이션학, 정보학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출현한 매스미디어관련 연구들은 각각의 학문적 발전에 따라 루만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매스미디어체계를 하나의 기능체계로 간주하는 루만의 기본전제를 비판한다. 루만은 문자, 인쇄술, 그리고 이후의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확산매체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의문은 산업조직에 의해 단순히 진술의 생산과 확산을 위해 투입되는 테크놀로지로서 매스미디어가 어떻게 사회의 정보를 가공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테크놀로지는 중재된 커뮤니케이션의 형식과 내용을 사전에 결정할 뿐이다.[29]

---

28) 루만, 2006, p. 95.

29) Weischenberg·Hienzsch, "Die Entwicklung der Medienthechnik", in: K. Merten et al. (ed.), 1994, p. 457.

다수의 언론학자들은 매스미디어를 조직체계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신문, 라디오방송국 그리고 TV방송국은 기능체계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체계의 형태를 띠면서 체계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매스미디어에 부여된 기능체계를 새롭게 대체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나타났다. 그 중에 저널리즘을 기능체계로 간주하는 연구가 가장 주목을 받았다.

바이쉔베르크(Weischenberg)와 블뢰바움(Blöbaum)은 매스미디어체계를 저널리즘체계로 대체하는 대표적 학자들이다. 이들에게 신문, 라디오방송, 그리고 TV방송국과 같은 매스미디어는 저널리즘 체계의 구성요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조직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바이쉔베르크는 매스미디어체계를 기능체계로 간주한 루만의 주장을 수정한다. 루만의 주장에 따르면 매스미디어체계의 기능은 결국 세계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관찰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이쉔베르크는 사회체계들의 중계국(Relaisstation)의 특징을 가지는 기술공학적 매스미디어는 자기지시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루만의 정보/비정보의 이항코드를 수용하면서도 저널리즘이 "세계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기획을 중재하거나 세계상을 새롭게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0] 그가 매스미디어가 아닌 저널리즘을 기능체계로 간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언론자유의 기본법 해석을 덧붙이면서 저널리즘체계에 동적인 개념을 부여한다. 저널리스트들은 언론자유를 관철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정세, 사회의 경제적 및 기술적 관계, 그리고 규범적 토대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하였다.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석기능이 추가되면서 저널리즘체계는 자기생산적이면서 동시에 역동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30) Weischenberg, "Journalismus als soziales System", in: K. Merten et al. (ed.), 1994, p. 429.

블뢰바움은 저널리즘 체계를 사회의 기능체계로 간주하면서도 바이쉔베르크에 의해 해석된 저널리즘의 기능을 다르게 해석한다. 즉 그는 "다양한 사회체계들과 환경으로부터 주제들을 모으고, 선별하며, 가공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 사회체계들에게 이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바이쉔베르크의 설명이 저널리즘의 기능이 아니라 저널리즘 기능체계 내의 실행체계, 즉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1]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블뢰바움은 루만이 설명하는 매스미디어체계의 작동방식에서 문제점을 찾는다. 루만의 체계이론에서는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블뢰바움은 조직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관찰자라는 이름의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체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치체계에서는 정치인과 유권자, 보건체계에서는 의사와 환자, 법체계에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스포츠체계에서는 선수와 관중이다. 이런 상관관계를 루만의 매스미디어체계에 적용시킨다면 정보수용자와 정보제공자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진다. 저널리스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종사하는 매스미디어에서 누가 정보를 선별하고, 가공하여, 다시 다른 사회체계에 되돌려주는가를 규명하는 일이 루만의 설명방식으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자 외에도 인쇄업자, 출판업자, 방송기술자, 편집자 등의 역할이 매스미디어라는 기술적 범주로는 희석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블뢰바움은 저널리즘을 기능체계로 간주하면서 저널리스트와 수용자를 구분하여 기능체계의 작동방식을 더욱 구체화한다.[32] 행위자의 역할이 부여되면 저널리즘 체계는 단순히 정보의 중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 자기지시(Selbstreferenz)와 타자지시(Fremdreferenz)를 통해 하나의 기능체계

31) Blöbaum, *Journalismus als soziales System,* Westdeutscher Verlag, 1994 (이하 Blöbaum, 1994로 표기).

32) Blöbaum, 1994, p. 59.

로서 자기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널리즘체계를 기능체계로 설정하고 행위자의 역할을 할당하면 사회에 대한 관찰과 성찰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루만은 자기지시와 관련하여 매스미디어체계가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면서 이미 알려진 정보는 낡은 것이 되어 정보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매스미디어체계에서는 환경으로부터 획득된 새로운 정보가 중요하다.[33] 하지만 루만식의 설명에 따르면 매스미디어체계는 자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 새로움만을 추구하는 매스미디어체계는 정보를 통해 도대체 어떻게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널리즘을 기능체계로 간주하는 블뢰바움은 저널리즘의 주된 기능이 공공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단순히 최신의 정보를 중개하는 것 외에도 공중에게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해석하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역할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34] 신문이 조직체계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내부의 구성원과 공중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근세의 계몽시대에 등장한 신문을 중심으로 "다수의 편집인은 그들의 일을 시민을 위한 계몽으로서 파악하였고", 따라서 "계몽의 의도는 조심스럽게 공동의 저널리즘적 자기이해로서 전제"되었다.[35] 그래서 루만이 매스미디어체계의 내부분화를 신문,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테크놀로지 수단들을 열거하였던 반면, 블뢰바움은 저널리즘체계의 내부분화를 정보저널리즘, 사회과학 저널리즘, 해석저널리즘, 탐사저널리즘으로 범주화하였다.[36] 이런 방식의 범주화는 내부적으로 자기지시를 통해 내부분화하면서도 환

33) 루만, 2006, p. 28.
34) Blöbaum, 1994, p. 27.
35) Blöbaum, 1994, p. 158.
36) Blöbaum, 1994, p. 56.

경, 또는 사회의 체계들을 관찰하는 2차질서의 관찰자로서 저널리즘체계의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내부분화된 저널리즘체계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들은 이제 수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정보를 활용한다. 〈표 1〉은 저널리즘의 분화된 유형과 그 특징이다.

〈표 1〉 저널리스트의 자기이해와 직업역할

기준	정보저널리즘	사회과학저널리즘
역할상	중개자	연구자
기초기능	정보	정보
직업역할	편집인	리포터/과학자
역량요구	낮음	높음
자율성규정	협소	넓음
역할인지	중립적-수동적/비당파적	중립적-적극적/비당파적
사실표현	객관적	객관적
	해석저널리즘	탐사저널리즘
역할상	설명자	감시자/변호인
기초기능	의견형성	통제/비판
직업역할	리포터	리포터
역량요구	중간	높음
자율성규정	중간	넓음
역할인지	참가적	참가적/당파적
사실표현	주관적	주관적

자료 : Blöbaum, 1994: 56.

2) 기능체계로서 저널리즘체계의 이론적 그리고 현실적 문제점

(1) 기능체계로서 저널리즘체계의 문제점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을 정리하여 저널리즘체계를 설명하는 블뢰바움의 연구는 저널리즘학에서 그동안 주변적 관심을 받았던 체계이론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블뢰바움의 연구는 매스미디어체계가 아닌 저널리즘체계를 기능체계로서 설명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장 근본적 문제는 저널리즘 체계에서도 이항코드를 여전히 정보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전달 그리고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체계 등 일반적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정보/비정보의 이항코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매스미디어체계에서든, 저널리즘체계에서든 정보가 이항코드로 작동한다면, 상호작용체계에서의 정보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루만은 비정보가 정보로 바뀔 수 있고 정보가 비정보로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한다. 근대사회에서 정보는 의미 있음과 의미 없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행화된 의미와 잠재적 의미로 구별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이다.[37] 그런데 이것을 매스미디어체계 혹은 저널리즘체계에 적용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정보와 비정보를 이항코드로 사용하는 매스미디어체계에서 상호작용의 작동방식처럼 정보와 비정보의 구별을 제한 없이 풀어놓으면 매스미디어체계는 수많은 정보가 제멋대로 난립하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매스미디어들이 인위적으로 정보를 만들어 낼 경우 '비정보의 정보화'라는 모순이 나타날 수도 있다.[38] 그리하여 매스미디어체계는 자신과 환경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루만은 매스미디어체계가 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자기관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역할로 제한하였다. 다른 사회체계들의 자기생산과정을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전달되는 정보에 의존하면서 매스미디어체계는 전체 사회의 자기관찰을 한다는 것이다.[39] 여기에 덧붙여 루만은 테크놀로지가 개입하는 매스미디어

37) 베르크하우스 지음, 이철 옮김, 『쉽게 읽는 루만』, 2012, p. 173.
38) 루만, 2006, p. 24.
39) Luhmann, *Die Politik der Gesellschaft,* Suhrkamp, 2000, p. 312.

체계에서는 상호작용이 배제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다.[40] 괴르케(Görke)는 루만의 대응을 재반박한다. 그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호작용체계의 커뮤니케이션이 정치체계, 경제체계 그리고 법체계에서는 수용될 수 있지만 대중매체체계에서는 상호작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묻는다.[41] 더군다나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지구화 시대에 매스미디어체계가 기능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정보의 정보화'의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더욱 난감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루만의 주장과는 달리 저널리즘체계를 기능체계로 간주하는 학자들은 루만의 매스미디어체계의 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듯 보였다. 그들은 저널리즘체계에서 편집/비편집의 이항코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다시 사회체계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42] 그러나 문제는 저널리즘체계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 즉 저널리즘체계의 자기생산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에 더욱 종속되어 가는 과정에서 심지어 저널리즘체계의 종말이란 선언이 나올 정도로 저널리즘체계는 존재 자체를 회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43] 저널리즘체계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2) 저널리즘체계의 현실적 한계상황

근세 초기 정당발행신문, 정부발행신문들이 저널리즘의 주를 이

40) 루만, 2006, p. 24.

41) Görke, "Das System der Massenmedien, öffentliche Meinung und Öffentlichkeit.", in: K-U. Hellmann et al. (ed.), 2003, pp. 127.

42) Marcinkowski, *Publizistik als autopoietische* System, Westdeutscher Verlag, 1993.

43) Lünenborg, "Die Krise des Journalismus? Die Zukunft der Journalistik!", in: *Publizistik* 57(4), 2012, pp. 445-461.

루었던 사실은 저널리즘이 정치체계에 종속되었던 시대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전쟁과 군사제도, 그리고 권력의 사용에 대해 알리거나 홍보하거나 각각의 정치적 신념과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공중에게 알리는 정치영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44] 저널리즘은 19세기 중반 이후 변화를 겪게 된다. 그동안 경시되었던 경제논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1871년 세계의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값싼 종이로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려는 신문사들의 노력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야기했다. 광고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신문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신문사들은 60-70%까지 광고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경쟁에 대처하였다. 경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신문사들은 정치체계로부터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기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다.[45]

출판매체는 변화하는 자본주의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분화되면서 발행인, 편집인 그리고 저널리스트들로 구분되었다. 발행인은 신문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영을 책임지고, 편집인은 신문의 방향과 가치를 위하여 다양한 뉴스를 선별하고 지면에 배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저널리스트들은 다양한 영역들 중 하나에 소속되어 해당 정보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서히 정치로부터 자율적 영역을 확보한 저널리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나의 기능체계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사실 지구화 물결이 세계를 압도하기 전 자본시장의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게 국가로부터 보호되었던 유럽의 저널리즘은 사회를 관찰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저널리즘은 산업적으로 저발전된 상태였다. 체신업무의 특성으로 그리고 공법상의 조직으

44) Blöbaum, 1994, p. 171.

45) Birken, "Das Jahrhundert des Journalismus – ökonomische Grundlagen und Bedrohungen", in: *Publizistik* 55(1), 2010, pp. 41-54.

로 국가에 독점되어 있었던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전방송 영역은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여지가 막혀있었다.[46]

1980년 중반 이후 산업적으로 저발전된 저널리즘의 구조는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제한된 시장경쟁 상태에 안주하고 있었던 유럽의 미디어산업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자본의 순환이 빨라지면서 그때까지 미디어와 거리를 두었던 자본들조차 그들의 과잉축적된 잉여자본을 "새로운 이윤을 보장하는 시설영역으로서 미디어산업"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47] 또한 경제의 주체들은 미디어산업을 통한 광고기능, 홍보기능 그리고 자본순환기능을 강화해야 했다. 그들이 미디어산업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였던 이유는 과잉축적의 위기, 구매력감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여 매스미디어를 필수적이고 적합한 문제해결전략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48] 개별미디어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하여 이윤극대화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행위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 당연한 기본목표이고, 게다가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생존전략이 되었다. 개별 매스미디어기업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개별자본에게 맡겨진 문제해결방식은 오히려 그들 기업이나 전체 경제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왜냐하면 족쇄가 풀린 미디어산업의 자본화 위에 점차적으로 불평등분배를 강화하는 자본의 재분배 문제가 부각되었던 것이다.[49]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매스미디어 조직들의 경쟁으로 정보는

---

46) Knoche, "Kapitalisierung der Medienindustrie aus politökonomischer Perspektive", in: *Medien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49, 2001, p. 181.

47) Ibid. 182.

48) Ibid. 182.

49) Ibid. 183.

상품이 되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정치인이 기업, 특히 미디어 기업과 유착관계를 맺게 되면서 정치체계의 유권자와 경제체계의 소비자는 더욱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결국 '정보를 통하여 자기생산하는 저널리즘체계'라는 전제는 충족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저널리즘체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이것은 관찰, 작동, 커뮤니케이션, 기능적 분화 혹은 자기생산이란 루만의 체계이론의 기본개념이 근본적으로 비판되는 이유와 관련된다. 쉬빈은[50] 과연 중세에서 근세를 거쳐 지금까지 계층적 분화가 약화되고 기능적 분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계층적 위계질서가 중세시대에는 과대평가되고 근대사회에는 과소평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다.

세계사회를 전제로 이론을 구성한 루만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분절적 사회, 계층적 사회 그리고 기능적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1980년 신자유주의적 정치모델과 사회모델의 도입과 함께 복지국가가 축소되면서 정치와 경제가 더욱 분리되었고 루만의 자기생산하는 기능체계의 사회이론은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정작 1990년을 전후하여 동구권과 소련의 현실사회주의국가가 몰락하고 지구화의 물결이 가속화되면서 루만의 이론은 오히려 현실과 조금씩 멀어졌다. 루만은 개별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주지만 체계들이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각각의 기능체계가 자기생산하는 과정은 근대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더욱 강한 복원력을 보여주는 국민국가(Nationalstaat)적 특징은 세계사회가 여전히 분절적 분화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51] 종교분쟁이나 종족적 시민전쟁의 부활은 분절

50) Schwinn, 1998, p. 14.

51) Schimank, "Weltgesellschaft und Nationalgesellschaften: Funktionen von Staatsgrenzen", in: B. Heintz et al. (ed.), 2005(이하 Schimank, 2005로 표기), pp. 394-414.

적 분화를 설명하는 대표적 경향이다.

계층적 분화도 분명하게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복지국가의 안정적 조건에서 정치, 경제, 과학, 종교, 법의 기능체계들이 독립분화되었다면 지구화시대의 저널리즘체계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결속으로부터 벗어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에 종속되는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후자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는 다른 체계들의 자기생산적 작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의 문제는 경제체계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체계들에서도 루만의 자기생산이라는 체계이론적 의미를 퇴색시킨다. 정치체계에서 유권자는 소극적 존재로서 정책의 단순한 대상으로 전락하고, 저널리즘체계에서 공중은 정보의 단순한 수용자가 된다. 차츰 정치체계와 저널리즘체계 두 영역이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주도되면서 중세시대의 과시적 공론장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52] 따라서 루만이 주장하듯이 세계사회의 역사는 분절적 분화, 계층적 분화, 그리고 기능적 분화의 진화론적 발전이라기보다 임호프의 주장처럼 세 가지 분화유형들이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한다는 설명이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설득력을 가진다.[53] 저널리즘체계를 공론장체계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분화유형을 고려하여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를 해석하고 전망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실제로 공론장체계를 둘러싸고 새로운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 문제는 공론장체계를 기능체계로 새롭게 설정하려는 시도는 공론장을 환경으로 간주하는 루만의 이론적 경향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공론장을 환경으로 간주하는 루만의 주장을 비판하고 공론장체계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

52) Imhof, "Mediengellschaft und Medialisierung", in: *Medien & Kommunikationswissenschaft* 54, 2006, p. 199.

53) Ibid. 192.

4. 기능체계로서 공론장 모델

1)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공론장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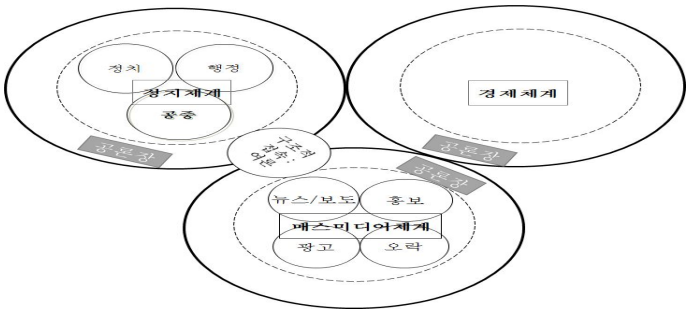
기능체계가 형식과 매체에 따라 환경과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자기생산한다면, 공론장은 누구에게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열린 공간이다. 루만은 체계들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공론장은 독자적인 하나의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부분체계들의, 곧 모든 상호작용과 조직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체계와 사회운동의, 사회내부적 환경"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54] 그에게 환경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 관찰들이 체계 그 자체에서 계속해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정보들을 구성하는 한에서만 중요"하다.[55] 체계 내에 있으면서 동시에 환경으로 작용하는 공론장에서 인격들(Personen)은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주제나 파트너를 특정하여 커뮤니케이션하지 않기 때문에 공론장은 체계내부의 복잡성을 매우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복잡성을 증폭시키는 공론장을 관찰하는 각각의 기능체계들은 이항코드, 체계의 구조나 프로그램 그리고 과정을 통해 복잡성을 감축시키면서 자기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치, 경제, 의학, 예술 같은 기능체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매스미디어는 부분체계들의 공론장에 특정한 형식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정치계로부터 "매스미디어는 주제와 입장과 반대 입장과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56] 그렇지만 이것들은 그 후 매스미디어로부터 정치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생산할 수 있

54) 루만, 2006, p. 144.
55) Luhmann, *Die Politik der Gesellschaft,* Suhrkamp, p. 288.
56) 베르크하우스 지음, 이철 옮김, 『쉽게 읽는 루만』, 2012, p. 374.

게 되는 것이다. 상이한 커뮤니케이션매체를 가지는 정치체계와 매스미디어체계가 서로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루만은 정치체계와 매스미디어체계를 연결시키는 구조적 접속으로서 여론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기능체계들 사이의 공론장과 여론의 관계는 그림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그림 1〉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기능체계와 공론장의 관계



사회의 2차질서의 관찰자로서 매스미디어는 정치체계로부터 "구체화된 대상 형식을 띤 특정한 주제의 지식"을 가져오지만 "누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다.[57] 동일한 의견이 있을 때조차, 어떤 관점에 따라 그것이 관찰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관찰자에게 전적으로 상이한 관찰이 초래될 것이고 상이한 논리적 귀결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58]

이처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가 사회를 교란시킨다고 설명한 루만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2차질서의 관찰자로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은 정치체계에게 단지 여전히 환경

57) 루만, 2006, p. 146, 베르크하우스, 2012, p. 375 번역 재인용.
58) Luhmann, 2000, p. 286.

이고 보충적인 기능을 가진다. 정보를 커뮤니케이션매체로 갖는 매스미디어체계와 권력을 커뮤니케이션매체로 갖는 정치체계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관계에서 여론은 두 체계를 연결시켜주는 구조적 접속의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는 여론조사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막상 유권자들은 인지적 일관성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의적이고 우연적 판단, 순간적 인상, 투표용지 앞에서 결정할 필요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59] 따라서 살아 있는 개인들의 견해가 결집된 여론은 고정된 의견이 아니고 단일한 총체적 표현으로도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치체계에서는 선거결과에 따라 권력을 소유한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가 구분되고, 지식인들에게 선거결과를 해석하는 과제가 부여될 뿐이다.[60] 루만이 공론장을 자기생산하는 사회체계들의 환경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의 역할을 경시하고 과소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61]

루만은 공론장이나 여론을 단지 참고할 뿐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정치체계는 권력, 그리고 매스미디어체계는 정보를 커뮤니케이션매체로 자기생산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구화시대에 사람들의 의사나 의지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신기기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면서 공론장체계는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영역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공론장은 체계들의 환경으로서 작용하는 영역이 아니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기능체계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

59) Luhmann, 2000, p. 283.

60) Luhmann, 2000, p. 283.

61) Gerhrds·Neidhardt, *Strukturen und Funktionen moderner Öffentlichkeit: Fragestellungen und Ansätze.* Wissenschaftszentrum Berlin, 1990(이하 Gerhrds · Neidhardt, 1990으로 표기), p. 5.

다. 따라서 공론장을 매스미디어체계와 정치체계의 주변적인 영역으로 규정하는 루만의 이론은 비판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2) 기능체계로서 공론장모델을 위한 이론적 구성

(1) 공론장의 형성과 디지털시대 공론장체계의 구조변동

공론장은 중세에 귀족, 왕 그리고 고위성직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공간이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공론장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했던 부르주아가 공중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사적견해를 표현할 수 있었던 장소가 되었다.[62] 근대 초기에 문예의 영역에서 시작한 공론장은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민주주의제도를 가능하게 했다. 공론장이 없었다면 정부의 성격을 둘러싼 정당간의 경쟁과 선거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차츰 부르주아 공론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공론장은 "술집이나 커피하우스나 거리에서의 삽화적 공론장에서부터, 극장에서의 상연, 학부모모임, 록 콘서트, 파티모임, 정당집회 또는 교회의 교무회의 같은 기획된 임석 공론장을 거쳐 전세계적 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개별 독자, 청중, 시청자들로 구성되고 대중매체를 통해 설립되는 추상적 공론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63] 공론장이 이처럼 확대되어가는 과정에 저널리즘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론장은 접근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참여의 종류도 신분과 지위 그리고 특별한 전문가의 역할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

62) 하버마스 지음, 한승완 옮김, 『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조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 2001, p. 20.

63) 하버마스 지음, 한상진 · 박영도 옮김,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 2006, p. 495.

특징을 가진다.[64] 그러나 저널리즘은 매스미디어의 기술적 장점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부분공론장과 개인들을 결집하거나 중계하면서 영향력을 독점하게 된다.[65] 이때의 영향력은 파슨스가 AGIL모델 중 사회-공동체체계의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접목될 수 있다. 파슨스는 영향력을 의도적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견해와 태도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66] 파슨스와 루만은 체계이론에서 기능체계들이 이항코드를 통해 작동하고 개인을 주변적 요소로 간주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론장체계는 영향력을 이항코드로 하여 작동한다.[67]

디지털시대의 등장은 공론장체계의 작동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공론장체계가 단순히 이항코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주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영역이 된 것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타인과 견해를 교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향력이란 커뮤니케이션매체를 둘러싼 공론장체계와 행위자의 관계는 단순히 기능체계의 작동방식에 행위자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체계의 작동방식을 구성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관계변화는 다른 기능체계의 작동방식에도 나타난다. 즉 기능체계의 이항코드가 행위자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행위에 따라 각 기능체계의 이항코드의 작동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68] 루만에 따르면 정치체계에서는 권력, 과학체계에서는 진리,

---

64) Gerhrds·Neidhardt, 1990, p. 16.

65) Alexander, "The Mass News Media in Systemic,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in: J. C. Alexander/P. Colomy(ed.), 1990, pp. 323-366.

66) Parsons, "On the Concept of Influence", in: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27(1), 1963, p. 38.

67) Alexander, Ibid.

68) Schimank, *Handeln und Strukturen, Juventa,* 2000(이하 Schimank, 2000으로 표기), p. 77.

경제체계에서는 돈이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매체로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치체계의 경우 단지 권력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들은 권력 외에 돈이나, 믿음이나, 진리를 위해 정치체계가 운영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그것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들이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가에 따라 기능체계의 특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69]

공론장체계는 다양한 영역의 행위자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영역이다. 그들은 공론장에서 타인을 자신과 같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존재로서 전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공론장은 비전문가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곳이기 때문이다.[70] 정치인은 정치체계에서, 경제인은 경제체계에서, 과학자는 과학체계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견해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공론장에서 사회적 행위자는 그들의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견해로서 타인을 납득시키려고 시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론장체계에서는 서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치열한 격전이 발생하게 된다.

근대 초기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던 공론장은 치열한 격전을 통해 점차 영향력의 불균형을 경험하였다. 매스미디어를 다루는 저널리스트, 홍보담당자 그리고 광고담당자가 공론장체계에서 전문가로서 등장하면서 공론장을 주도하였다. 차츰 이들이 사용하는 출판과 방송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일반인에게는 일종의 높은 진입장벽이 구축되었다. 출판과 방송의 파급효과는 갈수록 강력해졌다. 편집장과 전문가에 의해 정보들이 여과되고 난 후 공중에게 전달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여기에 저널리즘의 상업화는 공론장에서 뉴스나

69) Schimank, *Theorien gesellschaftlicher Differenzierung,* Leske+Budrich, 2002 (이하 Schimank, 2002으로 표기), p. 77.

70) Schimank, 2002, p. 77.

보도를 생산하는 저널리즘과 그것을 소비하는 공중의 불평등한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시켰다. 보도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도 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저널리즘체계처럼 공론장체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공론장체계의 근대적 의미는 극적으로 복원되고 있다.

1990년 이후 지구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상반된 현상이 관찰된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루만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매체로서 화폐를 지불능력/지불불능의 이항코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제체계는 현재와 같은 불평등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 구조나 프로그램 과정을 작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기능체계들이 돈에 의해 굴복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경제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19세기 말부터 형성되었던, 정치체계의 내부분화의 결과인 하위체계로서 정치, 행정 그리고 공중의 관계가 지구화시대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은 정당조직의 안정적 관리와 수익보장,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기업인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른 국가로의 기업이전을 무기삼아 정치인들에게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요구한다. 언론은 정보를 독점하면서 우호적인 정치인과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사회 엘리트들 사이의 거대한 카르텔을 주도한다.

반면 많은 시민들은 수동적이고 공공사안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축소된 역할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인다.[71] 결국 공중은 점점 더 정치체계, 경제체계 그리고 저널리즘체계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형식적 민주주의는 유지되

71) 크라우치 지음, 이한 옮김, 『포스트 민주주의』, 미지북스, 2008.

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목격된다. 이러한 현상이 크라우치가 우려한 포스트 민주주의시대의 특징이다. 절차적 형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진부해지고 활기를 잃게 되면서 민주주의 이전 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제체계 내부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가 팽배한 현재의 경쟁구도에서 물질적 희소성의 분배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돈의 지불능력/지불불능에 따른 경제체계의 작동방식을 체계 내부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되어 버렸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러한 현상과는 달리 인터넷과 모바일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점을 찾는 디지털 공론장을 형성시키고 있다. 정치체계, 경제체계, 종교체계, 과학체계에서 체계기능의 작동방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행위자는 공론장체계에서 각 체계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있다. 디지털공간은 이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과거에 언론과 홍보 및 광고의 전문가들이 독점했던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심지어 대중은 사이버공간에서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비용과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었던 출판과 방송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적은 비용과 아마추어적인 지식으로도 충분히 출판을 하고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비전문가인 대중이 생산하는 콘텐츠와 그것을 역으로 소비하는 언론처럼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기존의 언론이 중요하지 않은 사건으로 취급한 정보가 인터넷의 네티즌에 의해 순식간에 살아나고 퍼지는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한다.[72]

공론장은 근대 초기처럼 비전문가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

72) 서키 지음, 송연석 옮김,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웅진씽크빅, 2008(이하 서키, 2008로 표기), p. 72.

현하는 "공중의 격전장으로서 다양한 견해와 이해에 자기기술과 논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동시에 이들 견해와 이해의 일반화 가능성을 위한 시금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73] 공론장은 루만이 규정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체계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공론장체계는 지구화시대에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한다. 첫 번째는 국민사회(Nationalgesellshaft)의 영토적 경계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행위자이다.

(2) 국민사회의 공론장과 행위자의 관계 형성

루만은 분절적 분화, 계층적 분화, 그리고 기능적 분화로 사회가 진화론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분절적 분화나 계층적 분화가 근대사회에 단순히 부차적 요인이 되고 서서히 의미가 축소되고 기능적 분화단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쉬만크는 루만의 이러한 진화론을 비판한다.[74]

세계사회를 지향하는 기능적 부분체계들의 작동은 영토적 경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능체계들은 지구화되는 정도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체계는 국경으로부터 가장 자유롭기는 하지만 화폐의 지불이 영토적 경계 앞에서 멈추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체계는 언어, 열정으로서의 사랑은 피부색, 믿음을 기반 하는 종교체계는 위도에 제한된다. 과학체계는 교육체계보다 지구화되었고, 프로스포츠는 생활스포츠보다 지구화되었다. 만약 기능체계들이 이처럼 영토경계에 구속되지 않고 작동한다면 세계사회뿐만 아니라 개별국가도 당장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

73) Gerhrds · Neidhardt, 1990, 16.
74) Schimank, 2005, pp. 396-397.

세계로부터 몰려드는 수많은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무질서 그리고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의 빈부격차와 사회불평등의 문제는 심각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영토의 경계가 지구화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이다. 즉 영토의 경계 안에서 행위자의 행위능력의 구성, 사회통합과 체계통합 및 사회진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토가 경계로서 중요해지더라도 국민국가의 개념보다 국민사회의 개념이 선호될 필요가 있다.[75] 기본적으로 정치체계는 권력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위 하는 국가는 국제정치의 극심한 대결 속에 폐쇄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영토 내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사회의 특징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기 위해서는 국민사회의 개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쉬만크는[76] 영토를 경계로 하는 국민사회의 기능이 무시된다면 세계사회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에 의해서든 아니면 국가주의적 대결을 통해서든 심각한 재생산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았다.

정치체계는 국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유형으로 나타난다. 복지국가, 민주적 제도를 가진 국가, 독재국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 비민주와 민주의 경계에 있는 국가 등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국가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체계를 권력의 유무로만 관찰한다면 개별 국민사회의 행위자의 행위방식을 간과하게 만든다. 개별 국민사회는 고유의 규범과 가치를 가진다. 더욱 근원적으로 쉬만크가 열거하는 행위자의 행위동기들인 사회학적 인간(homo sociologicus), 경제적 인간(homo oeconomicus), 감정적 인간(emotional man), 정체성주창자(Identitätsbehaupter), 여기에 크론(Thomas Kron)이 추가한 정치적 인간이 고려되면서 국민사회의 행

75) Schimank, 2005, pp. 394-414.
76) Schimank, 2005, p. 410.

위자가 만드는 개별적 특징이 나타난다.[77] 즉 세계사회에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기능체계가 개별 국가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사회의 행위자에 의해 기능체계들이 능동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정치는 이념과 지역감정의 대립으로 불안정한 역사적 경로와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제도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력은 여전히 개인적 의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발휘되고 있다. 의회의 경우에도 한국의 정당은 보스 중심의 계파집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지지자들은 특정지역의 정치지도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투표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는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타협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감정과 이념적 갈등을 조장하는 장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내부분화된 하위체계로서 정치와 행정, 그리고 두 영역을 평가하는 공중에 의해 정치체계가 자기생산한다는 루만의 설명은 공허하다.[78]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더군다나 시장의 생존논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되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치인과 경제인과 언론인의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공론장에 인터넷과 모바일에 의해 형성된 사이버공론장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행위자들은 정치체계의 기능약화와 기득권세력의 카르텔을 깨트리기 위한 절박한 요구와 실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사회 특유의 공론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

77) Schimank, 2002.
78) Luhmann, 2000.

3) 공론장체계에서 행위자의 역할 : 영향력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

(1) 디지털시대의 공론장체계의 변화와 과제

근대사회가 시작되면서 개인은 형식적으로는 자유를 보장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직업과 같은 조직 혹은 가족 공동체 속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서구의 복지국가는 과거의 전통적 조직이나 공동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승강기 효과가 개인으로 하여금 과거의 전통적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와 견해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개인은 과거처럼 노동조합, 직장 혹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의 문제나 이슈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모임을 결성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흩어지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울리히 벡이 주장하는 개인화테제는 1990년을 전후하여 쉬만크의 행위자 이론과 마인츠와 샤르프의 행위자중심의 제도주의이론으로 이어졌다.[79] 기본적으로 행위자를 이론에 수용하려는 이 세 명의 학자들은 짜임관계(Konstellation)라는 개념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행위자와 그들의 관계를 설명한다.[80] 그러나 이들 학자의 이론보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는 훨씬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다. 전통적 저널리즘에 사이버공론장이 추가되면서 네티즌의 활동은 서키가 적절하게 표현하듯이 사이버공간의 공론장에서 "이곳저곳에서 동시에 서로 연결되고, 끌리고, 쏠리고 들끓고" 있다.[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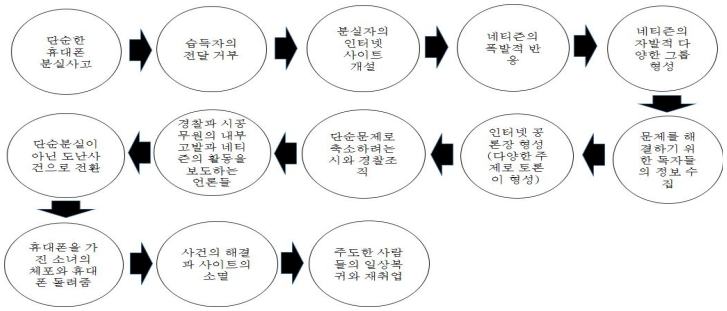
79) Mayntz·Scharpf, "Der Ansatz des akteurzentrierten Institutionalismus", in: R. Mayntz · F. W. Scharpf(ed.), Campus Verlag, 1995, pp. 39-71.

80) 김태근· 김학실,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독일과 한국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과 의미 비교」, 『한국비교정부학보』18-3, 2014, pp. 1-33.

81) 서키, 2008, p. 9.

개인이나 소수가 의기투합하여 맺는 짜임관계는 다양한 웹사이트, 블로그, 팟캐스트,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규합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조금씩 주도한다.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이 결합된 공론장이 사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서키가 소개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온라인 공론장과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사회적 영향력의 형성



자료 : 서키, 2008: 10-23쪽을 재구성

물론 사이버공론장이 이처럼 순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공론장에 여과되지 않고 표현되면서 수많은 주장과 견해들이 경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합의나 동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나 경쟁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일반적 현상이다.[82] 더군다나 공론장의 경쟁이나 갈등은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다. 공론장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이상주의, 감정적 갈등, 타협 없는 경쟁, 기존 질서에 대한 복

82) 무페 지음, 이행 옮김,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2007.

종, 불합리한 타협, 상식적 수준의 타협이 혼재되어 있다.[83] 따라서 공론장은 특수적이고 다양하며 이질적인 내용들로 채워지게 된다.

다양한 가치가 경쟁이나 갈등에 주로 노출되는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포함하는 공론장체계의 혼란은 다른 체계들, 특히 정치체계의 불안정을 부채질 할 것이다. 공론장체계에서 혼란을 겪은 행위자들이 정치체계에서도 경쟁이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치체계는 매우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한 공론장체계의 우려를 정치체계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국가주의나 포퓰리즘 정치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혹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치는 다시 공론장을 더욱 분열시키면서 사회의 통합이나 체계통합을 더욱 어렵게 한다. 경제체계에서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리하여 이항코드인 돈의 지불능력/지불불능은 경제체계에서 계급적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지구화시대와 디지털시대의 이러한 전개과정은 루만의 자기생산이라는 이론적 전제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점이 본 연구가 루만의 분화이론을 수용하면서도 기능체계의 자기생산이라는 개념이 아닌 기능체계의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그의 초기이론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각 기능체계의 기능이 다각화되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84] 특히 공론장체계의 행위자가 경쟁이나 갈등 외에 공론장체계에서 최소한의 협력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가 개별 국민사회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론장체계에서 영향력을 둘러싸고 최

83) 서키, 2008, p. 22.
84) Schimank, 2000.

소한의 새로운 규범과 규칙이 공론장체계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공론장체계가 다른 사회체계들과 어떤 관계가 설정하는가에 따라 개별 국민사회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다. 개별 국민사회의 공론장체계와 사회체계들의 관계는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사회의 사례에서 본 공론장체계의 변화와 과제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한국의 전통언론들은 사회의 공론장을 강력하게 지배하였다. 특히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독재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한국언론들은 재벌과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확보된 사회자본과 경제자본으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85] 한국 언론은 점차 "국가권력과 경쟁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권력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독립적 '권력기관'으로 부상"하였다.[86] 문제는 권력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정치와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한 상호견제가 아닌 권력과 이익을 지향하였다는 점이다. 두 세력의 상호유착관계는 경쟁의 결과였다.[87] 그리하여 정치-언론-자본의 관계는 권력과 이익의 중대한 균열이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 한 매우 우호적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정치권력의 보호와 경제기업의 후원을 받는 언론은 사회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공론장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했던 언론은 시민의 개인성이나 비판의식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표

85) 제정임·이봉수, 『경제저널리즘의 종속성: 한국 신문의 재벌 보도와 광고의 관계』, 한국언론재단, 2007.
86) 박승관·장경섭, 「한국의 정치변동과 언론권력 : 국가-언론 관계 모형 변화」,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14-3, 2000, p. 81.
87) 같은 논문, p. 101.

현이나 민주적 의식함양을 방해하거나 통제하였다. 그 결과 보수 언론이 지배하는 공론장에서 시민들은 가부장적인 문화, 국가안보, 시장논리 혹은 지역감정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등장은 한국사회의 불균등한 공론장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켰다. 과거보다는 많이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가부장적이고 서열화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여전히 주저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사람들의 행위는 사뭇 다르다. 낮은 신뢰수준의 한국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꺼렸던 사람들은 인터넷이 등장한 초기부터 사이버공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말과 글을 통해 낯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였다. 그들은 매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향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이 결합된 현재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고 또한 정부의 통제정책으로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IT산업이 강한 한국에서 소셜미디어가 사이버공론장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이버공론장의 행위자들은 사람들의 사고와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기존언론의 독점적 뉴스나 보도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면서 공론장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뉴스나 보도를 자체 제작하기도 한다. 사이버공론장에서의 적극적 경향은 미국과 비교해서도 더욱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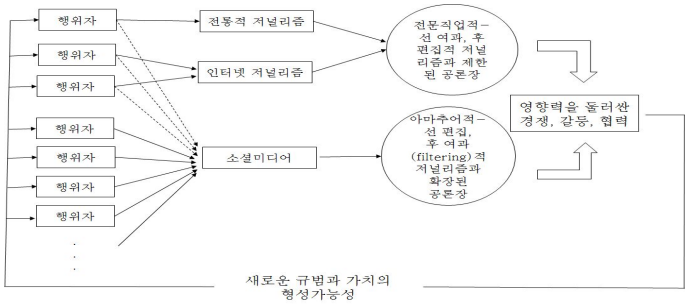
대체로 미국의 네티즌은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반면 한국의 소셜미디어는 주로 공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 한국의 소셜미디어는 뉴스/정보를 획득하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맺기를 위해 사용된다.[88] 사이버공론장에서 행위자들은 가부장적 문화와 반공이데올

88) 한상기, 『한상기의 소셜미디어 특강』, 에이콘, 2014(이하 한상기, 2014로 표기), pp. 215-216.

로기를 거부하며 새로운 담론을 내놓기도 한다. 전통적 저널리즘과 인터넷저널리즘에 비해 갈수록 역동적이 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행위자들에 의해 나타난다.[89]

첫 번째 유형은 복합형 영향력자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경제인 등은 이미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면서 그들의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인지도에 의한 영향력자이다. 이들은 앞의 유형처럼 이미 알려져 있는 인물이면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가진다. 최근에 디지털 공론장체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세 번째 유형은 대중 영향력자이다. 이들은 아마추어 저널리스트로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정보력을 수집하고 논리적 주장을 하면서 공론장체계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명성을 획득한다. 공론장체계는 이들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행위자와 인터넷 저널리즘 행위자 그리고 전통적 저널리즘 행위자가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거나 갈등하거나 협력하는 영역이 되고 있다.

〈그림 3〉 공론장체계의 작동방식



89) 같은 책, p. 309; 이창호 외, 『소셜미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한누리미디어, 2013, p. 23.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사이버공간의 매우 혼란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은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로 격렬하게 경쟁하거나 갈등하고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격전이 벌어지는 공론장에서 과거부터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통적 저널리즘과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명성을 획득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1인 저널리즘 혹은 대안 저널리즘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행위자들은 공론장에서 적극적으로 뉴스와 보도를 생산하면서 전통적 저널리즘의 영향력에 저항한다. 울리히 벡[90]이 주장하는 계급, 지위, 국가, 종교로부터 벗어나 개인화되어가는 행위자의 유형이 한국의 공론장체계에 나타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공론장체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보수와 진보, 지역감정, 세대차이를 중심으로 극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공론장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 하나는 공론장체계에서 새로운 규범과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사회의 불확실성을 감축시키는 길이다. 다행히 한국사회가 현재 비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은 공론장에서 경쟁, 갈등, 및 협력이 발생하는 과정에 명성을 가진 소셜미디어 행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91]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면서 실명을 사용하는 페이스북에서 뿐만 아니라 익명이나 필명을 허용하는 트위터에서도 명성을 얻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친다.[92] 명성은 다시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중반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론장의 연계는 매우 빈번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공론장체계에서 영향력을 중심으로 경쟁

90) Beck, "Jenseits von Klass und Nation: Individualisierung und Transnationalisierung sozialer Ungleichheiten", *Soziale Welt,* 59(4), 2008, pp. 301-325.

91) 서키, 2008, p. 106과 비교.

92) 한상기, 2014, p. 252.

하고 갈등하며 타협 혹은 협력하면서 행위자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규범과 규칙이 형성된다면 정치체계도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민주적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경제체계도 단순히 돈에 의해 작동하지 않고 연대나 정의 등을 실현시키려는 경제행위자들의 노력들이 관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희망적 전망이 아닌 다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한국의 공론장체계가 협력보다 경쟁과 갈등으로 치닫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적 차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세계사회적 차원의 의미와도 씨름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개인의 등장, 정치적 발전, 사회권의 확대를 순차적으로 경험한 서구보다 더욱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공론장체계에 갈등이 증폭되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지구화시대에 더욱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이다. 그리하여 공론장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체계가 더욱 왜곡되고 급기야 국민사회가 위기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공론장체계에서 공유하는 규범이나 규칙이 없다면 경제체계는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즉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장체계에서의 노력에 무관심한 채 자신과 가족의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경제체계는 오히려 계층적 분화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는 경제체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와 노동자의 연대에 대해 무관심해 지게 된다.[93] 또한 소비자로서 대기업제품과 명품을 선호하는 과시적 소비행동을 보이게 된다.[94] 따라서 경제체계의 '보편적 커뮤니케이션매체인 돈'이라는 개념은 형식상으로

93) 유형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 : 울산지역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1987-201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12.

94) 우실하, 「사회적 과시의 재생산 메커니즘과 광고」,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 201』 10-1, 2007, pp. 133-175.

만 존재하게 될 뿐 기능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공론장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구화시대에 경제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과학체계도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하여 과학체계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쟁과 시장논리를 좇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진리추구는 부차적인 일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국민사회의 기능체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정치체계에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정치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치체계에 대한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면서도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과도한 요구는 정치체계를 왜곡시키게 된다. 정치체계와 공론장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사회에 포퓰리즘 정치나 극우주의적 정치가 출현할 것이란 우려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95] 또는 선거철마다 이합집산과 정치공학적 지역주의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기능체체계들은 각각의 이항코드를 통해 자기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능체계가 자기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사회통합이나 체계통합은 더욱 어려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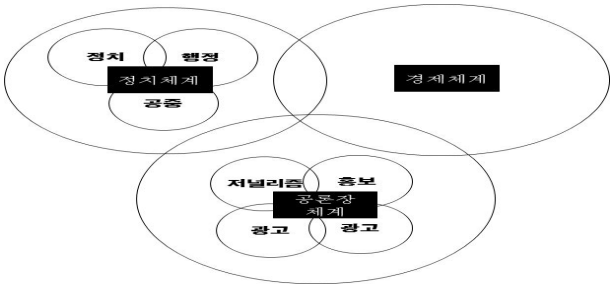
매우 비관적인 이런 전망에 맞서 공론장체계에서 행위자의 행위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른 기능체계와는 달리 사회질서를 기대하는 행위자들이 말과 글과 행위를 통해 서로 경쟁, 갈등, 혹은 협력하면서 공유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루만이 주장하듯이 기능체계는 이항코드에 따라 자기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능체계의 상대적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96]

---

95) 조기숙,『포퓰리즘의 정치학』, 인간사랑, 2016.

96) 행위자는 루만의 기능체계에 의해 선별되는 인격(Person)이 아니라 제도화된 도덕적 존재로서 개인(Individuum)이다(벡 지음, 홍찬숙 옮김,『자기만의 신 : 우리에게 아직 신은 존재할 수 있는가』, 길, 2013, p. 135).

〈그림 4〉 기능체계로서 공론장체계



5. 결 론

1990년 이후 지구화시대와 디지털시대가 열리면서 세계사회는 갈수록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능체계들은 각각의 코드를 중심으로 독립분화되어 간다. 문제는 기능적 분화가 발생하면서 분절적 분화나 계층적 분화가 서서히 약해질 것이라는 루만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기능체계에서의 불평등한 관계이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세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체계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학의 이론은 더욱 난해해진다. 과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과학자와 학생의 관계에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정치체계의 경우 정치인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유권자는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있다. 정치에 관심을 잃게 되면서 유권자는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참여에 소극적이 된다. 결국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면서 정치체계는 권력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 정치인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종교체계에서도 믿음을 독점하는 종교조직과 개인적 믿음을 찾으려는 신

자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는 경향을 보인다.[97]

이러한 각 기능체계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족현상을 루만이 주장하는 기능체계 내부의 자기생산적 작동이란 이론적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널리즘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체계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분리되었다. 기능이 약화되는 정치체계, 난해한 이론의 과학체계, 자신만의 신을 찾아가는 종교체계는 사회의 복잡성을 감축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의 공백을 경제체계의 돈의 논리가 개입하면서 다른 기능체계들을 잠식하고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인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와 정치적 혼란이다.

세계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에서 국민사회의 공론장체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사회의 공론장체계는 국경 내의 분절적 분화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계층적 분화와 기능적 분화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절적 분화형태의 공론장이 주목받는 것은 단절된 각 기능체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갈구이며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대에 연유한다. 행위자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공론장체계에서 갈수록 시장의 논리와 돈이 우선되고 지배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사회를 인식하게 된다. 행위자들은 다양한 해결방식을 놓고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경쟁이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합의나 상호이해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행위자들은 공론장체계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행위 하는 개인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의 결과이다. 즉 공론장체계에서 행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개별

97) 같은 책.

사회의 특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행위자들이 공론장 체계에서 평판을 얻고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개별 국민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질서의 형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공론장체계에서 행위자들이 만드는 공유된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은 다른 기능체계들의 복잡성도 감축시키면서 동시에 행위자들이 각 기능체계에서 새로운 복잡성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은 개별 국민사회의 정치체계에서 이항코드인 권력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대립하지만, 공론장체계에서 공유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의 성격에 따라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틀을 만들어갈 수 있다. 또한 경제체계에서는 돈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하지만 공론장체계에서 공유된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기업가적 행위자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시대에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을 기대할 수 있고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98] 이처럼 개별 국민사회의 공론장체계는 신자유주의시대에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심영역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공론장체계가 앞으로 더욱 주목받고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루만 지음, 김성재 옮김, 『대중매체의 현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_____, 박여성 옮김, 『사회체계이론1,2』, 한길사, 2007.

98) Boltanski·Chiapello, *Der neue Geist des Kapitalismus,* Konstanz: UVK Universitätverlag, 2003.

_____, 장춘익 옮김, 『사회의 사회 1,2』, 새물결, 2012.
Luhmann, N., "Systemtheorie, Evolutionstheorie und Kommunikationstheorie", in: N. Luhmann(ed.), *Soziologische Aufklärung2*, Opl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1975, pp. 193–203.
_____, "Differentiation of Society", In: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1), 1977, 29–53.
_____, "Autopoiesis, Handlung und kommunikative Verständigung.", in: *Zeitschrift für Soziologie* 11(4), 1982, 366–379.
_____, "Wie ist Bewußtsein an Kommunikation beteiligt?", in: N. Luhmann(ed.), *Soziologische Aufklärung6*, Opl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1995, pp. 37–54.
_____, *Die Politik der Gesellschaft,* Frankfurt a. M.: Suhrkamp, 2000.
_____, "Veränderungen im System gesellschaftlicher Kommunikation und die Massenmedien", in: N. Luhmann(ed.), *Soziologische Aufklärung3*, Opl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5, pp. 353–368.

2. 논문

김태근 · 김학실,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독일과 한국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과 의미 비교」,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18–3, 2014, pp. 1–33.
박승관 · 장경섭, 「한국의 정치변동과 언론권력 : 국가–언론 관계 모형 변화」,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14–3, 2000, pp. 81–113.
우실하, 「사회적 과시의 재생산 메커니즘과 광고」,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 201』 10–1, 2007, pp. 133–175.
Alexander, J. C., "The Mass News Media in Systemic,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in: J. C. Alexander/P. Colomy(ed.), *Differentiation Theory and Social Change: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p. 323–366.
Beck, U., "Jenseits von Klasse und Stand?", in: R. Kreckel (ed.), *Soziale Ungleichheiten,* Göttingen: Verlag Otto Schwartz & Co, 1983, pp.35–74.
_____, "Jenseits von Klass und nation: Individualisierung und

Transnationalisierung sozialer Ungleichheiten", *Soziale Welt,* 59 (4), 2008, pp. 301–325.

Birken, T., "Das Jahrhundert des Journalismus - ökonomische Grundlagen und Bedrohungen", in: *Publizistik* 55(1), 2010, pp. 41–54.

Gerhards, J., "Diskursive versus liberale Öffentlichkeit. Eine empirische Auseinandersetzung mit Jürgen Habermas", i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49(1), 1997, pp. 1–39.

Görke, A., "Das System der Massenmedien, öffentliche Meinung und Öffentlichkeit.", in: K–U. Hellmann et al. (ed.), *Das System der Politik. Niklas Luhmanns politische Theorie,*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2003, pp. 121–135.

Imhof, K., "Mediengellschaft und Medialisierung", in: *Medien & Kommunikationswissenschaft* 54, 2006, pp. 191–215.

Knoche, M., "Kapitalisierung der Medienindustrie aus politökonomischer Perspektive", in: *Medien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49, 2001, pp. 177–194.

Lünenborg, M., "Die Krise des Journalismus? Die Zukunft der Journalistik!", in: *Publizistik* 57(4), 2012, pp. 445–461.

Mayntz, R. · F. W Scharpf, "Der Ansatz des akteurzentrierten Institutionalismus", in: R. Mayntz · F. W. Scharpf(ed.), *Gesellschaftliche Selbstregelung und politische Steuerung,* Campus Verlag: Frankfurt/New York, 1995, pp. 39–72.

Merten, K., "Evolution der Kommunikation", in: K. Merten et al. (ed.), *Wirklichkeit der Medien,*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1994, pp. 141–162.

Parsons, T., "On the Concept of Influence", in: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27(1), 1963, pp. 37–62.

Schimank, U., "Weltgesellschaft und Nationalgesellschaften: Funktionen von Staatsgrenzen", in: B. Heintz et al. (ed.), *Weltgesellschaft: theoretische Zugänge und empirische Problemlagen,* Stuttgart: Lucius & Lucius, 2005, pp. 394–414.

Schwinn, T., "Soziale Ungleichheit und funktionale Differenzierung", in: *Zeitschrift für Soziologie* 24(3), 1998, pp. 3–17.

Weischenberg, S., "Journalismus als soziales System", in: K. Merten et al. (ed.), *Wirklichkeit der Medien.*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1994, pp.427–454.
_____ · U. Hienzsch, "Die Entwicklung der Medienthechnik", in: K. Merten et al. (ed.), *Wirklichkeit der Medien*,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1994, pp. 455–480.

2. 단행본

뒬멘 지음, 최윤영 옮김, 『개인의 발견: 어떻게 개인을 찾아가는가 1500–1800』, 현실문화연구, 2005.
디버트 지음, 조찬수 옮김,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질서: 양피지, 인쇄술, 하이퍼미디어』, 나남출판, 2006.
무페 지음, 이행 옮김,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2007.
베르크하우스 지음, 이철 옮김, 『쉽게 읽는 루만』, 한울, 2012.
벡 지음, 홍찬숙 옮김, 『자기만의 신 : 우리에게 아직 신은 존재할 수 있는가』, 길, 2013.
서키 지음, 송연석 옮김,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웅진씽크빅, 2008.
유형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 : 울산지역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1987–201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12.
이창호 · 김은국 · 최영재, 『소셜미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한누리미디어, 2013.
제정임 · 이봉수, 『경제저널리즘의 종속성: 한국 신문의 재벌 보도와 광고의 관계』, 한국언론재단, 2007.
조기숙, 『포퓰리즘의 정치학』, 인간사랑, 2016.
크네어 · 나세이 지음, 정성훈 옮김,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갈무리, 2008.
크라우치 지음, 이한 옮김, 『포스트 민주주의』, 미지북스, 2008.
페브르 · 마르탱 지음, 강주헌 · 배영란 옮김, 『책의 탄생: 책은 어떻게 지식의 혁명과 사상의 전파를 이끌었는가』, 돌베개, 2014.
하버마스 지음, 한승완 옮김, 『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조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 2001.
_____, 한상진 · 박영도 옮김,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 2006.
한상기, 『한상기의 소셜미디어 특강』, 에이콘, 2014.
Blöbaum, B., *Journalismus als soziales System,*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4.
Boltanski, L. · E. Chiapello, *Der neue Geist des Kapitalismus*, Konstanz: UVK Universitätverlag, 2003.

Gerhards, J. · F. Neidhardt, *Strukturen und Funktionen moderner Öffentlichkeit: Fragestellungen und Ansätze*. Berlin: Wissenschaftszentrum Berlin, 1990.

Marcinkowski, F., *Publizistik als autopoietische System: Politik und Massenmedien. Eine systemtheoretische Analyse,*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1993.

Schimank, U., *Handeln und Strukturen,* Weinheim: Juventa, 2000.

_____, *Theorien gesellschaftlicher Differenzierung*, Opladen: Leske+ Budrich, 2002.

(**투고일**: 2016. 2. 27 **심사완료일**: 2016. 4. 4 **게재확정일**: 2016. 4. 10)

이름: 김태근
소속: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전자우편: trootkim@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Public Sphere as the Functional System through the Reconsideration of Luhmann's System Theory

Kim, Tae-Keon

Communication is emphasized in Korean society. It is because of expectation that social conflict can be solved through communication. But communication does not guarantee mutual understanding. Rather it will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other. Then the question of how the social order is possible is asked. This study, based on Luhmann's communication theory and the differentiation theory, criticizes or complements his system theory and suggests alternative ways in which each nation society can resolve the current conflict situation. In other words, the public sphere in each national society is emphasized in oder to show the beginning of the practical direction for solving the various problem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Key Words : System Theory, Communication Theory, Differentiation Theory, Niklas Luhmann, Actor Theory, Public Sphere System